

# “여성·생명 소중함 잊지 않으려 빼앗긴 이름 위한 비망록 썼죠”

시집 '작가의 사랑' 펴낸 문정희 시인  
다국적 여성 문인들 대담 소재로  
근대 최초 여성 작가 김명순 닉 달래  
보성 출신... “남도 문예르네상스 고대”



문정희 시인

문정희 시인은 “문학의 보편성, 문학의 독자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내재된 여성과 생명을 노래” 했다고 한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이전에 남도 출신 시인으로서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번 시집은 부당한 이유로 이름을 빼앗긴 여성들을 호명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작품 ‘곡시’는 한국 문단에서 최초로 등단한 여성 작가 탄실 김명순을 위한 진혼곡이다. 유학 중에 데이터 강간을 당하고 조롱과 따돌림에 시달렸던, 문학사에서 유폐된 작가다.

“조선아, 이 사나운 곳아, 이답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러도/ 할 수만 있는 데로 또 학대에 보아라. 피로 절규한 그녀의 유언은 오늘도 뉴스에서 튀어나온다.”

이처럼 시는 차별과 저항의 비망록이다. 나아가 여성의 노래를 삼기는 생명의 복원점으로 다가온다. 시인은 ‘곡시’를 곡을 하는 계집종이라는 뜻의 곡비(哭婢)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예전에, 양반의 장례 때에 행렬 앞에서 대신 곡을 하는 계집종이 바로 곡비였다. 시는 마치 작금의 ‘미투’라는 페미니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깊은 여운을 준다.

시인은 앞으로 ‘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작품을 쓸 생각이다.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 고향 남도에 대한 애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남도 문학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또한 어머니가 물려준 남도의 언어로 시를 쓰고 문학을 해왔으니까요. 남도의 언어, 남도의 감성은 저의 문학을 풍성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오늘의 저를 만들었지요. 지난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문예르네상스 자랑분으로 꽃 피우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문정희 시인은 “나는 문이다.”, “지금 장미를 따라”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으며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고려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생명에 대한 소중한 그리고 민감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름으로, 이름을 빼앗긴 여성들의 차별과 저항의 비망록을 담고도 싶어요.”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71)이 열네 번째 시집 '작가의 사랑'(민음사·사진)을 펴냈다.

그동안 시인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목소리를 시로 형상화해왔다. 작금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시인의 작품은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2년 전 모스크바 국립 외국문학도서관에서 열리는 ‘한국시인과의 만남’ 행사를 앞두고 문 시인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인은 “한국 시인으로 러시아에 소개되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피력했었다.

이번 통화에서도 저자는 칠레,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을 방문하며 세계 시인들과 교류했던 일화, 작품에 얽힌 배경 등을 풀어냈다. 통화 중간 중간 광주를 비롯한 남도 정서를 강조하는 시인의 말에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시인은 “동시대를 사는 시인은 자신의 시대와 결부되는 언어와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 시를 지나치게 도외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꾸만 여성시 범

주에만 묶어두는 것도 한편으로는 불합리하며 굴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을 뛰어넘는 ‘생명’의 보편성 나아가 시대와의 공감도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표제시 ‘작가의 사랑’은 시인의 이러한 사유가 아름다우면서도 정치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작품은 여러 나라의 여성 문인들이 모여 나는 대답이 소재가 됐다.

여섯 명의 여성 작가가 무릎을 맞대고 모여 있다.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폴란드 시인이 말한다. 사랑 이야기보다 아우슈비츠의 기억이 우선이라고. 그전에 사랑을 말하는 자는 작가가 아니라고. 순간 모두가 침묵할 때 문정희 시인은 말한다.

“애국심은 팬티와 같아. 누구나 입고 있지만 나 팬티 입었다고 소리치지 않아.”(‘작가의 사랑’ 중에서)

## 어른이 된 땅콩집 소년 강성률 소설 ‘땅콩집 이야기’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강성률 교수가 자전적 장편 소설 ‘땅콩집 이야기 8899’(작가와 비평·사진)를 펴냈다.

소설은 2014년 ‘땅콩집 이야기’, 2015년 ‘땅콩집 이야기 7080’에 이은 제 3권이다. 1, 2권이 출생부터 청소년기, 현대사의 질곡을 배경으로 한 성장기를 다루고 있다면 3권 ‘땅콩집 이야기 8899’는 대학교수가 된 이후의 주인공의 삶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태민은 혼란한 사회상만큼이나 가정, 경제적으로 심한 굴곡을 겪는다. 소설은 한 개인의 삶이 정치, 경제, 가정적 환경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를 토대로 전개된다. 다시



말해 다층적 사회구조가 한 개인의 삶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영광 출신 강 교수는 전남대 철학과 와 동 대학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이야기 동양철학사’,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 등 저서를 펴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 ‘달콤한 재즈’

16일 ‘크림’ 콘서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재즈 밴드 ‘크림’▶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올해 세 번째 월요콘서트로 재즈 밴드 ‘크림(Cream)’의 ‘Breathe-’ 공연을 선보인다. 1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에서는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테마곡인 ‘인생의 회전목마’ 등을 선보인다.

크림은 Creative, revolution, express, action, musician의 약자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칫 대중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재즈음악을 크림 본연의 의미인 달콤하고 따뜻하게 연주하며 대중과 소통하

고자 한다.

이날 공연에는 드럼 김민호, 피아노 오세주, 베이스 전사무열, 색소폰 서영교, 게스트 보컬 윤덕현이 출연한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월요콘서트’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것 외에도 관람객 전원에게 공연 후기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월요콘서트 네 번째 공연은 오는 23일 성악을 기반으로 한 크로스오버 팝페라 그룹 ‘진진 클래식’의 ‘도타도타 팝페라’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입장료 1만 원. 문의 062-670-794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

참가자 20일까지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과 월간 문화잡지 ‘전라도닷컴’이 제8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를 개최한다.

전라도말을 할 줄 아는 사람(개인 또는 단체)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모집은 4월 20일까지다. 3분 내로 발표 가능한 내용을 요약해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이메일 (webmaster@jeonlado.com)이나 우편 접수(광주시 북구 삼정로 87번길 20(두암동) 월간 전라도닷컴), 또는 팩스(062-654-9086)로 접수 가능하다.

원고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오는 5월 5일 펼쳐지는 본선 무대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대회에는 전라도 전라도말 퀴즈대회와 조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654-9085. /박성천기자 skypark@

## 독립운동 기록물·일기 등

문화재청, 5월12일까지 공모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공모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민)은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유실되거나 잊힌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광복군과 관련된 유산들을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서 생산·배포한 기록물이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의 일기와 수기 등이다. 공모 대상은 동시에 한정하며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 이상(1968년 이전)이 지난 유물이어야 한다.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조. 문의 042-481-4894. /박성천기자 skypark@

## 조성호 클라리넷 리사이틀

18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조성호(사진) 클라리넷 리사이틀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조 씨는 브람스 클라리넷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 레퍼토리는 ‘F.A.E. 소나타 다단조 중 스케르초’, ‘클라리넷 소나타 제1번 바단조, 작품120’, ‘클라리넷 소나타 제2번 내림 마장조, 작품120’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듀오 연주자로 출연한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20년 만에 열린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수석 선발 오디션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200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선발돼 화제가 됐다. 이후 활동 10개월 만에 종신수석으로 최종 선임됐다.

선화예중, 선화예고를 수석 입학, 졸업한 조씨는 고교시절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오광호를 사사하고 졸업 후 도독해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대학에 입학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셀마’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자로서, 최근에는 ‘헨리 셀마’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의 솔로 리사이틀을 비롯해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